

국내외 보조 연구가 네트워크 구성

<普照>

보조사상연구원, 10월 7~8일 보조 국사 열반 800주년 국제학술대회

“보조사상 지눌의 사상은 한국불교학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외 이러한 학문적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은 아직 세계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보조사상연구원 원장 법산 스님(사진은 9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조사상 열반 8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것을 밝혔다.

법산 스님은 “한국불교가 세계 속에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특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나라의 불교와의 공통점과 보편성을 이해시키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조계종단의 종조인 보조사상 지눌의 삶과 사상이야말로 한국불교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조사상연구원 원장 법산 스님(사진은 9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조사상 열반 8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지눌의 정혜결사(定慧結社)의 삶 △깨침과 닦음에 관한 돈오점수(頓悟漸修) △선과 교의 회통과 조화 △간화선 △계율 및 정토사상 등 한국불교의 특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법산 스님은 “보조사상 지눌은 원효와 더불어 한국 불교는 물론 동아시아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원효가 동아시아 대승불교를 이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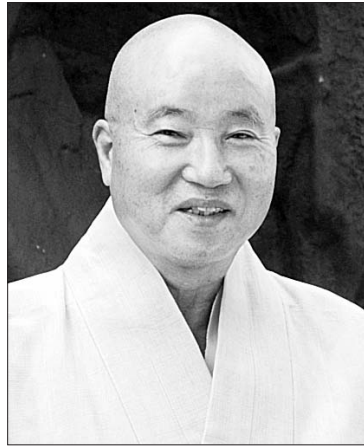
는 철학적 초석을 다져놓았다면 지눌은 동아시아 불교에 선(禪)과 교(敎)의 회통적 철학체계를 완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스님은 “보조사상 지눌의 사상은 한국불교학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스님의 생각에는 한국불교학계에서 불교에 관한 연구들 중 보조 지눌과 관련된 논문이 그 질과 양에 있어 단연 으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지눌의 저작들이 그만큼 영향력과 가치가 있음을 대변해 1987년 보조사상연구원이 설립됐고 보조사상에 대한 연구가 크게 활성화됐다.

이때 나온 보조사상연구원의 학술 발표물 ‘지눌의 돈오점수와 성철의 돈오돈수의 논쟁’ <진심지설>의 저서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한 논쟁’ 등은 불교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기도 했다.

법산 스님은 “이처럼 보조사상 지눌의 사상에 대해 관심과 연구가 끊이지 않는데 세계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제간 학문적 교류가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학자간 교류를 통한 학문적 활동 영역을 넓혀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자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산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



해 보조사상 연구자들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조사상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연구자들 대부분은 보조사상 연구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대부분의 자료들이 있으나 국외 연구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대회를 통해 보조사상 연구원은 국내는 물론 국외 연구자들의 연구방향 및 인적사항 등을 새롭게 정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학자들 간의 교류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산 스님은 “보조의 사상이란 곧 한국 조계종단, 나아가 한국불교의 행동방침이다. 그러므로 보조사상을 널리 알리는 것은 한국불교학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문화의 세계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학술대회는 10월 7-8일 서울 법련사 대웅전에서 ‘보조사상 지눌의 사상과 그 현대적 조명’을 주제로 열린다. 첫째 날에는 법산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이 ‘한국불교의 전통과 보조 지눌 스님’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맡는다. 이어서 △강건기 교수(전북대)의 ‘오늘의 세계, 왜 보조사상인가?’ △성원 스님(미국 하와이주립대 교수)의 ‘박한영(1870-1948)의 선 종파주의 비판’ △박상국 원장(한국문화유산연구원)의 ‘<보조초봉사기>에 대한 소고’ △니시무라 에신 교수(일본 하나노노대)의 ‘지눌의 사상적 특성’과 그 현대적 의의’ △요시즈 요시히데 교수(일본 고마자와대)의 ‘<화엄론절요>에 있어서 교판론의 의의’ △신규택 교수(연세대)의 ‘보조지눌에 대한 규범종법의 영향’ 등이 발표된다.

둘째 날에는 △광성 교수(홍콩대 불교학센터)의 ‘중국문화에서의 선 불교의 영향’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 자연치유학과 교수)의 ‘간화선에 기반한 명상상담 일고찰’ △정승석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의 ‘돈오점수와 진심식량(眞心息忘)의 요가 철학적 성격’ △임승택 교수(경북대)의 ‘위빠사나에 비추어 본 보조지눌의 수행체계’ 등이 발표된다.

이어나 기자 bohyung@buddhapia.com

‘지눌의 선사상’ 한국 대표서

동아시아출판회의, 동아시아 대표 인문서 100권 선정

2009년 전주에서 열린 제9회 동아시아출판회의에서는 <지눌의 선사상>(소나무 펴)을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100권의 책(표)’중 한국 부문의 책(총 26권)으로 선정했다.

한국 비교종교학의 권위자인 길희성 명예교수(서강대)가 저술한 <지눌의 선사상>은 보조사상 지눌의 삶과 불교 이론의 핵심을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짚고 있다.

길희성 교수는 지눌 선사상을 한국 불교사에서 세 명의 큰스님으로 꼽으면서, 그 스스로 선사임에도 불구하고 학승으로서의 면모도 함께 갖추고 있다고 한다.

저자는 지눌 선사상 철저히 수행승이면서도 깊은 교학(敎學)적 학문적 소양을 갖춘 학승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길 교수는 오늘날 이따금 지성인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선불교의 불립문자(不立文字)적 태도와 달리 그의 선사상이 지니고

있는 합리적 성격을 잘 드러내 여전히 매력적임을 밝혀주고 있다.

특히 길희성 교수는 지눌 선사상 당나라 종밀(宗密)의 관련 사상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종밀과는 달리 간화선 전통을 수용하고 한국에 간화선이 주류로 자리잡게 하는데 중심 역할을 했다는 데서 그 기여를 뚜렷하게 규명해내고 있다.

길희성 교수는 또한 지눌 선사상의 사상이 단순히 선교입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당시 불교 내의 천태종과 정토종은 물론, 불교 밖의 유교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상이었음에도 주목했다.

한편 동아시아출판회의(회장 김연호)는 동아시아를 대표할만한 인문서 100권에 대한 해제집 <동아시아 책의 사상 책의 힘>(한길사 펴)을 펴냈다.

<동아시아 책의 사상 책의 힘>에는 20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간행된 명저와 문예작 등을 해설하고 있다.

동아시아출판회의는 중국·홍콩·대만·한국·일본의 3개국 5지역의 대표 출판인들이 동아시아의 서적교류촉진을 목적으로 결성한 민간비영리회의이다. 이 회의는 2005년 가을, 도쿄에서 열린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각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해왔다.

김연호 회장은 “동아시아출판회의는 유구한 동아시아의 문화적, 정신적 전통을 공유하고, 갈등과 반목의 역사적 관계를 극복해 동아시아의 연대를 추구하는 한중일 주요 인문 출판사들이 펼치는 새로운 출판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나 기자



이론의 ‘바라밀’ 실천의 ‘보현행원’

불광연구원 11일 ‘광덕사상 학술연찬회’

불광사를 대표하는 표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마하반야바라밀’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이다. 이론적 측면은 ‘바라밀’을 바탕으로 하고, 실천의 측면에는 ‘보현행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일 만큼, 바라밀과 보현행원은 불광사와 광덕 스님을 상징하는 용어이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9월 11일 불광사 교육원 강당에서 ‘보현행원의 길, 왕생극락의 길’을 주제로 제3차 광덕사상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원섭 상임연구원

(성철사상연구원)이 ‘광덕 스님의 보현행원 사상’을, 김영진 교수(인하대 한국학연구소)가 ‘반야바라밀 염송과 법신염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원섭 연구원은 <광덕 스님 전집> 제3권에 수록된 ‘보현행원품강의’를 중심으로 스님이 바라보는 보현행원의 의미를 고찰하면서 오늘날 불자들이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모색했다.

최 연구원은 “광덕 스님은 반야바라밀만큼이나 보현행원을 정확한 설명 속에 간곡하게 그 실천을 당부했다”며 “스님의 보현행원을 한 마디

로 하자면 ‘부처님으로 살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광덕 스님은 보현행원은 불도를 이루겠다는 차원의 수행이 아니라 이미 깨달음을 얻은 자가 펼쳐내는 불행(佛行)차원의 행위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며 “관건은 오직 불자들이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모색했다.”

이어서 김영진 교수는 ‘바라밀염송과 법신염불’의 주제발표에서 “광덕 스님이 제시하는 바라밀염송은 염송의 대상이 부처님의 명호가

아니라 ‘마하반야바라밀’이라는 점에서 정토염불과 차이가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광덕 스님의 사상에 대해 “스님은 염불을 통해 사후에 극락세계에 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가진 무한생명을 가작하고 바로 지금 이 공간을 긍정함으로써 보현행원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나 기자



김영진 교수

최원섭 상임연구원

불교 전통의식 3기 수강생 모집

단기 속성 - 3개월 과정 (범음 범패 - 1년 과정)

불광불교대학에서는 예불, 불공, 천도제 등 각 사찰에서 행해지는 불교의식을 교육하고자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안내

- 입학자격 : 스님, 남·녀 재가 불자 및 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사찰 및 포교원 회원 하실 분(종단 등록 가능), 수료 후 법사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분
(초심자 및 재가 불자 환영)

- 개강일시 : 2010년 10월 6일(수요일) 오후 2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토요일 오후 2시 ~ 5시
- 강의장소 : 도동 불광불교대학

2. 교육내용

- ▶ 단기 속성(3개월)과정 : 도량식, 조석종성, 상단예불, 각단예불, 신중칭, 관음칭, 지장칭 등 천도제, 49제, 시달림, 관음시식, 화엄시식 (사물 - 북, 요령, 목탁)
- ▶ 1년(법사과정) 과정 : 천도식(범음범패) - 시련, 대령, 관음 신중작법 - 응호계, 상단권공 및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계

특강 : 승무, 살풀이(무형문화재 제7호 전수자 류희연 개인지도)

※ 초심자에게 불교전통의식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함

3. 접수처 : 불광불교대학 중무소 (053-986-1080)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반영합판 사진 3매

도동 불 광 불 교 대 학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44 (팔공IC 5분거리) ☎ 053)986-1080 / 010-5470-8730

종무법인 禪農教團

(법원등기 제 000006호)

우리불교조계종 입종안내

선농교단 총재 弘山 현불

「 建法幢立宗旨 法의 깃발 높여 이 道理 세움이어
 明明佛勅曹溪是 스승의 밝고 밝은 가르침이라
 第一迦葉首傳燈 제일조 가섭의 등불 始發로 하여
 二十八代西天紀 스물 여덟 등불이 서천의 불 밝혀
 今朝禪農立家風 』 우리 불교 선농의 가풍을 세움이라”

- 永嘉覺證道歌中引用 -

◆ 입 종 비 : 없음

◆ 입종서류 :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명함판 사진 4매,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법당 안 밖 사진 1매

※ 각 사찰 인감등록 및 발급 (차량구입 및 부동산 취득시)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 총무원 수월사

■ 주 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지리 611번지

■ 사무국 : 070)8843-7620 / FAX 041)943-7620 ■ 총재직통 : 016-850-1208